



본 란에는 일간지, 잡지, 컴퓨터 통신 정보란 등에 올라있는 기사 중에 광학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해서 게재하고 있으며, 낱자와 출처는 밝히지 않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광학세계' 편집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올림푸스한국, 카메라시장 공략 포문

올림퍼스 카메라의 국내 판매법인인 올림푸스한국(대표 : 방일석)이 지난 3월 20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출범식을 갖고 한국 카메라시장 공략을 위한 포문을 열었다.

올림푸스한국은 일본의 세계적인 카메라업체 올림퍼스광학공업의 한국법인으로 지난해 10월 자본금 60억원 규모로 설립됐으며, 지난 6개월 간 유통망 정비와 한국시장 분석 및 사업전략 수립에 힘써왔다.

초대 사장으로 임명된 방일석 사장은 "세계시장 1위인 올림퍼스의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올해 국내 디지털카메

라시장 18%, 필름카메라시장 24%를 점유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선진물류시스템을 구축해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전국 주요도시에 올림퍼스 AS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고객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테크윈(주) 케녹스 카메라 2500만달러 수주

삼성테크윈(대표 : 이중구)은 지난달 중순 말레이시아 랑콰이에서 거래선 및 사진 관련 기자단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제3회 아시아 카메라 컨벤션 행사에서 호주, 대만, 인도, 싱가포르 등의 딜러로부터 2,500만달러 규모의 카메라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테크윈측은 연말까지 1억5,000만달러 수출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후지필름등 관련업체, 디지털이 미징사업 매진

관련업체에 따르면 올림푸스한국·한국후지필름 등 해외 디지털카메라업체들은 올해를

국내 디지털 이미징 사업의 원년으로 보고 시장 확대를 위해 국내 벤처업체들과 공동으로 디지털 이미징 사업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

주요 카메라업체들이 국내벤처와 업무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필름시장에 비해 디지털 사진 인화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견되는 등 디지털 이미징사업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후지필름(대표 : 남정식)은 지난해말 야후코리아와 제휴를 맺은 데 이어 최근 SK C&C(대표 : 변재국)의 사내벤처인 사이버스냅(www.cybersnap.co.kr)과 업무제휴를 맺고 디지털 사진 인화 및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림푸스한국(대표 : 방일석)은 현재 업무제휴를 위한 벤처업체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올림푸스한국이 이들 벤처와 함께 추진하게 될 사업은 디지털 이미징 관련 사업, 멀티미디어 주변기기 사업과 동영상 비로한 음성복합기기 사업등이다.

디지털카메라, 환율인상희비

원달러환율의 오름세가 계속

되면서 디지털카메라 수입업체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자 한국 코닥, 한국후지필름, LG상사, 소니코리아 등 달러로 결제하는 디지털카메라 수입업체들은 울상을 짓고 있는 반면, 한화로 결제하는 올림푸스한국과 엔화로 결제하는 휴먼테크 및 1년 전 고정환율로 결제하는 아그파코리아 등은 느긋한 표정이다.

현재 미국에 본사가 있는 코닥은 물론이고 일본에 본사가 있는 후지나 캐논 및 소니조차 외환거래의 안정성을 들어 달러로 결제하기를 요구하고 있어 올림푸스 등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원달러환율의 인상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환율인상으로 고통받는 것은 삼성전자나 삼성테크윈 등 국내 업체들도 마찬가지. 디지털카메라 제조에 들어가는 CCD 등 부품의 대부분이 외산이기 때문에 환율인상으로 부품구입비용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000달러 이상의 고가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들의 경우 원달러 환율의 오름세로 똑같은 제품에 대한 구매비용이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이상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대폭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C카메라업체들 수출시장 개척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알파비전텍, 엠테크비전, 삼성전기 등은 지난해 수출 교두보를 마련한 데 이어 올해는 내수판매보다 수출 물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PC방과 영상채팅 열풍으로 국내에서도 PC카메라 수요가 크게 늘어나긴 했지만 월 2만대 정도로 그 규모가 제한적인 데다 대만산 제품들의 저가 공세로 시장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에는 재고로 쌓인 대만산 제품이 8,000원에 팔리는 등 덩핑제품까지 유통되는 실정이어서 내수시장 물량 확대는 지양하고 품질 및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외 선진시장을 노크하고 있다.

복사기

롯데캐논등 복사기업체, 디지털화 급물살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후지제록스가 하반기부터 아날로그 복사기 제품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디지털 복합기로 완전 대체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경쟁사인 롯데캐논, 신도리코, 태흥아이에스, 청호컴넷 등도 디지

털복합기 영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롯데캐논(대표 : 김대곤)은 지난해 말부터 디지털복합기 GP시리즈 5종을 국내생산하고 있는데, 연내 디지털복합기 보급기종을 출시하고 디지털제품 영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지식을 갖춘 디지털제품 전담 영업사원교육에 들어갔으며 디지털 복합기용 프린터보드, 팩스보드 개발을 진행 중이다.

신도리코(대표 : 우석형)와 청호컴넷(대표 : 박광소)도 디지털복합기모델인 아피시오 5종과 일본 교세라 미타의 지디털복사기 4종에 대한 영업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사진관련장비

삼성테크윈등 관련업체, 디지털사진 시장 공략 나서

그동안 인터넷 벤처기업들이 주도해온 온라인 사진인화서비스시장에 최근 들어 대기업은 물론 대형 인터넷 포털까지 잇따라 가세해 디지털사진 관련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온라인 사진서비스시장의 활성화로 디지털사진의 촬영·출력·편집·인화 등에 사용되는 각종 장비시장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디지털사진 관련 시장이 올해만 5,000억원

대, 3년 이내에 1조원을 상회하는 대형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추정돼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산업 군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삼성테크윈도 4월초부터 이미 25만여 고객을 확보하면서 국내 최대의 사진사이트로 떠오른 「줌인(<http://www.zoomin.co.kr>)」을 통해 사진인 화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C&C도 최근 온라인 사진서비스 「사이버스냅(<http://www.cybersnap.co.kr>)」을 오픈한 데 이어, SK글로벌이 자체 주유소 망을 이용한 디지털 사진 인화서비스사업에 본격 진출하기로 했다.

아이디스, 미국 최대 보안감시장비업체와 계약 체결

감시카메라 영상을 디지털로 저장하는 '디지털 카드'를 개발, 보안감시장비 시장에 진출한 아이디스(대표 : 김영달)가 본격적인 미국시장 공략에 나섰다. 지난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보안장비전시회(ISC)에 참가해 미국 최대 보안감시장비 판매업체인 아텔코 그룹과 CC(폐쇄회로)TV 영상저장장치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

아이디스의 주력 제품은 감시카메라 16대의 영상을 2개월까지 동시에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카드'. PC와 연결해 사용하는 장비로 동영상의 순간 검색은 물론 모니터 하나에 여러 개의 영상 표시를 할 수 있다.

아이디스의 올해 매출 목표는 3백40억원으로 지난해 83억의 4배가 넘는다.

현미경

PSIA, LG필립스 LCD에 원자현미경 공급

산업용 원자현미경(AFM) 제조업체인 PSIA(대표 : 박상일)는 최근 LG필립스LCD와 1000×1200mm 기판용 원자현미경(모델명 SM5-L1012)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LG필립스LCD에 공급하는 원자현미경은 1대로 해당 단가가 8억원 수준이다.

액정표시장치(LCD)용 원자현미경은 포토공정을 마친 액정기판의 PR표면 단차 등을 시료의 손상없이 측정할 수 있어 LCD 생산공정을 최적화하는데 필수적인 계측장비다.

그동안 일본업체가 국내에 공급한 원자현미경은 검사원이 수작업을 통해 LCD의 표면을 계측하는 오프라인 방식의 제품이었으나, 이 회사 제품은 생산라인 상에 배치해 무인으로 작동하고 검사결과를 자동으로

입력해 주는 인라인 자동화 제품이다.

'SM5-L1012'는 마이크로 머시닝(micro machining)으로 제작된 극히 미세한 탐침을 시료 표면에 근접시켜 발생하는 원자간의 상호 작용력을 측정, 시료표면의 형상을 알아내는 장치다. 또 진공상태에서만 작동되는 전자현미경과 달리 대기 중에서도 사용가능하며 시료표면의 형상뿐만 아니라 시료의 전기·자기·물리적 특성도 계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광소자 및 레이저

시스템테크, 첨단 지문인식 장치 개발

시스템테크(대표 : 김운경)는 기존 광학방식과 반도체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지문 인식 기술인 박막센서 방식의 지문인식 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박막센서 방식은 지문인식장치에 부착된 얇은 센서가 손가락에서 나오는 인체전류를 파악해 지문의 굴곡과 모양을 분석하는 기술이다. 렌즈를 통해 지문의 굴곡을 읽는 광학방식은 지문이 마모·손상되면 인식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 접점의 위치를 파악하는 반도체 방식은 정전기에 취약

한 단점을 보였다.

김운경 사장은 "박막센서 방식은 광학장치나 집적회로가 필요 없어 지문 인식 장치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가격이 저렴할 뿐아니라 내구성도 우수하다."고 말했다.

LD 증산 신바람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이노텍은 작년 LG전자로부터 이관 받은 월 15만개 생산능력의 LD와 LED(발광다이오드) 생산라인을 광주 공장에 새롭게 구축,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 생산능력을 월 50만개로 확대했다. 또 최근 LD가 공급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응, 올 연말까지 월 100만개로 생산능력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LG 측은 DVD용에 이어 CDRW용 LD도 현재 개발 중이며, 7월부터는 본격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삼성전기는 LD의 응용 시장을 바코드와 CD롬용에서 CDRW와 DVD용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월 300만개의 전체 생산능력 가운데 DVD용 LD에 월 50만개의 생산능력을 할당했다. 또한 조만간에 CDRW용 LD를 개발 완료하고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최근 CD롬과 DVD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DVD콤비용 제품도 상반

기 안에 개발, 하반기부터는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ARF 엑시머레이저 장비 공급 활발

차세대 광원인 불화아르곤(ArF)을 쓰는 엑시머레이저 장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업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엑시머레이저 개발업체인 미국의 사이머와 독일의 램다피지크, 일본의 기가포톤 등은 초미세회로선폭기술을 도입하는 반도체업체들로부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ArF를 쓰는 차세대 엑시머레이저 장비 시장공략에 들어갔다.

ArF 레이저는 파장이 기존 불화크립톤(KrF)의 248나노미터(nm)에 비해 193nm로 짧아 초미세회로선폭을 구현할 수 있다.

해외뉴스

캐논, 제록스 제치고 미국 복사기시장 "1위"

시장조사회사인 가트너그룹은 복사기 판매대수에 의거, 미국 복사기 시장에서 캐논은 1999년 29%에서 지난해에는 32%로 증가했으며 제록스는 28%에서 25%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복사기 판매대수는 1999년에도 캐논이 제록스보다 많았으나, 제록스는 고가의 고성능 기업용 복사기시장에 주력해 매출액에 기반한 시장순위에서는 캐논을 앞질렀다.

코닥, 패트리샤 루소 첫 여사장 임명

1백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필름회사인 미국의 코닥은 지난 4월 11일 패트리샤 루소(48)를 새 사장 겸 최고경영책임자(COO)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루소는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다니엘 카프를 도와 영업전반 및 장기 전략수립 등의 핵심 업무를 맡게 된다고 외신은 전했다.

루소는 1992~1996년 루슨트테크놀로지의 비즈니스 통신사업 부문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익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그 전에는 IBM, AT&T 등 거대 기업들을 거치며 전략기획, 마케팅, 영업 등을 두루 익혔다. 그는 지난해 8월 루슨트에서 퇴사한 뒤 텔레콤업체인 아바야의 회장으로 일해 왔다.

코닥 경쟁업체 3사 제소

미국 이스트먼코닥이 일본 산요전기와 세이코옵슨, 그리고 벨기에 아그파 등 3개 경쟁업체를 디지털카메라 기술관련 특허침해 혐의로 미 연방법원

신상품 정보

테크노비전, 웹 카메라 출시

PC 및 주변기기 유통 및 개발업체인 테크노비전(대표 : 차석경)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원격지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웹카메라 '시큐메라'를 개발했다.

기존 웹카메라는 최소 70만원에서 수백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나 설계 최적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구입해 설치할 수 있도록 20만원대로 가격을 크게 낮췄다. 광학소자로는 35만화소급 4분의 1인치 CCD를 채용했으며, 노출이나 색상조정 등은 자동 조절된다. PC카메라로 이용시 초당 15프레임의 VGA급(640×480)의 영상을 처리할 수 있으며, 웹카메라로 사용할 경우에는 초당 2프레임의 CIF(320×240) 영상을 받아볼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초고속 인터넷 회선이 유동 인터넷주소(IP)를 사용하고 있는만큼 IP주소가 바뀌면 이를 이메일로 알려주며 PC카메라가 직접 연결된 PC에서는 예약녹화, 움직임 감지 시 녹화 등의 기능도 수행된다.

문의 : (02)539-9609



▲ 테크노비전의 '시큐메라'

코콤, 최소형 디지털카메라 출시

코스닥업체 코콤(대표 : 고성욱)이 성냥갑 크기 정도의 무게 44g짜리 최소형 디지털카메라(모델명 KDC-110)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제품은 35만 화소의 디지털카메라와 PC카메라 기능이 복합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성능 또한 동급제품 중 가장 우수하고 타사의 80만 화소 제품에 버금갈 정도로 해상도가 뛰어나다. 또 사진은 즉시 인쇄하거나 e메일 전송이 가능하도록 JPEG파일로 저장되도록 설계됐으며, 64MB의 내장 메모리로 최대 106장까지 연속촬영이 가능하며 표준 AAA건전지 2개로 2,000장까지 촬영 가능하다.

웹게이트, 웹스피드돔 카메라 시판

웹게이트(대표 : 이경)가 삼성테크윈과 공동 개발한 인터넷 기반의 웹스피드돔 카메라를 시판에 들어갔다. 웹스피드돔 카메라는 기존 아날로그 타입의 고급형 돔카메라와 달리 웹브라



▲ 웹게이트, 웹스피드돔 카메라

우저내에서 모든 조작이 가능한 인터넷 기반의 제품으로 상하좌우의 고속 회전 기능과 128배 고속 줌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감시할 수 있다. 또한 64개 카메라를 중앙에서 예약,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 여러 곳에서 작업이 가능한 아파트, 대형 유통점 등에 적합하다.

올림푸스한국, 국내 최초 128MB 스마트미디어 발매

일본 올림푸스광학공업의 한국법인인 올림푸스한국(대표 : 방일석)가 128MB급 스마트미디어 「M-128PIE」를 국내 시장에 첫선을 보인다.

올림푸스한국이 이번에 선보이는 대용량 스마트미디어는 디지털카메라와 MP3플레이어 등에 이용되는 400만 화소급 디지털카메라로 최대 137장, 200만 화소급에서 최대 257장의 사진을 저장할 수 있다.

에 제조했다고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코닥은 소장에서 눈이 발광하게 나오는 레드아이를 줄이는 기술과 이미지파일 압축, 그리고 카메라와 컴퓨터 저장장치 연동 등의 디지털 기술특허를 자사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 3개 업체의 사용 중지를 요구했다.

필름 5개사 3월색 농도 통일

일본 후지사진필름, 미국 이스트먼코닥 등 세계의 주요 사진필름 제조업체 5개사(후지필름, 코닥, 코니카, 아그파게발트, 페라니어테크놀로지)가 필름의 발색을 결정하는 적·청·녹 3월색의 농도를 통일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사진현상소의 인

화방법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나타났던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림퍼스와 코닥 기술특허 상호제공 합의

이스트먼코닥과 올림퍼스가 1,000건에 달하는 양사의 디지털카메라 관련 기술특허를 상호 제공(크로스라이선스)하기로 합의했다.

올림퍼스가 코닥과 손잡은 이유는 디지털카메라의 기간부품 고체촬상소자(CCD)의 공급원인 소니가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신제품 투입에 실패한 데서 찾는다. 따라서 올림퍼스로서는 새로운 CCD 공급업체가 필요했고, 소니와 경쟁하기 위해선 미국에 뿌리를 둔 업체의 도움도 절실했다.

코닥의 경우 미국을 벗어나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다른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다른 업체와의 제휴가 불가피했다. 사실 코닥은 CCD를 포함해 영상 관련으로 엄청나게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광학렌즈와 고밀도실장 기술이 없어 생산을 외부(치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코닥이 세계화 전략으로 내민 카드가 바로 디지털처리 관련 기본특허다. 응용기술 밖에 없는 일본 업체들을 위협할 수 있는 이 특허를 무기로 연합을 형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첫번째 대상이 올림퍼스인 셈이다. 이런 배경에서 접근하면 3월 초 3사를 대상으로 한 제조사의 의도가 훨씬 명확해진다. “제조는 3사에 대한 ‘동지가 되자’는 제안인 동시에 다른 업체에 대한 협박”이라고 관계자들은 해석한다.